

WSJ “트럼프,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

11월 APEC서 대면 가능성…회담 추진 방안 비공개 논의
“트럼프, 이란戰 성과 없자 북미 정상회담에 의욕”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당시에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당시 북한도 물밑에서 회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

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

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며 “연합훈련은 김 위원장에게 회담에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WSJ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는 배경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외교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북미 정상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과거보다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만난 2019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6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등과 관계를 강화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협상 환경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해 실전 경험을 쌓았고,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도 강화했다.

연합뉴스



한미연합훈련 ‘울지 자유의 방패’(UFS)가 실시 중인 가운데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들이 방수 커버로 덮여 있다. 전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동맹에 화풀이…美언론 “韓, 최근 희생양”

‘한미훈련 축소’ 지시에 악시오스 “동맹 결속력 훼손”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최근 ‘희생양’이 됐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hard power)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썼었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약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난타하고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정치적으로 목은 원한을 갚아왔다

이란 전쟁은 그의 이러한 충동을 더욱 심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답하지 않은 동맹국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은 트럼프의(동맹국에 대한)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의 가장 감쪽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축소를 지시한 건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해온 ‘울지 자유의 방패’(UFS)다.

연합뉴스

‘눈에는 눈’…프랑스, 이란 외교관 2명 추방

지난달 이란 주재 프랑스 외교관 2명이 현지 당국에 억류됐다 풀려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프랑스가 이란 외교관 2명을 추방하기로 했다.

장노엘 바로 외무 장관은 18일(현지시

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에 주재 중인 이란 외교관 2명이 조만간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주이란 프랑스 대사관 직원 2명이 이란 보

안 당국에 수 시간 억류돼 심문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은 신체적 가혹행위까지 당했다. 두 외교관은 이란 예술가·과학자 등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이란은 두 외교관이 ‘시민사회 소통’을 구실로 이란 내정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